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16~10/2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부처님의생애(종단본)	교육원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2	고요함의지혜	에크하르트톨레	김영사	7	선의황금시대	오경웅/류시화	경서원
3	미소지으며죽는법(모곡사야도의12연기법문)	우쉐이띤/김춘란	행복한숲	8	보리도차제광론2(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2)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4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9	불멸(3)아무래도아무렇지않은	이각	지혜의눈
5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10	네가지마음챙기는공부*대념처경과고주석서(초기불전001)	각묵옮김	초기불전연구원

책세상

일제강점기 도심에 '참선' 전한 선지식



백용성의
화두 참선법
허정선 지음
운주사/ 2만2000원

백용성 선사의 참선 포교 연구서
참선 중흥 · 민족 독립 위해 헌신
도심 속 화두 참선 8개 주제 소개
'본각진성' 누구나 찾을 수 있어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용선 선사 진영.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에 한국 전통불교인 참선의 중흥과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한 백용성 선사의 삶을 조명한 책이 출간됐다.

책 〈백용성의 화두 참선법〉은 백용성 선사의 참선포교에 관한 연구이다. 지금까지 선사의 생애와 활동, 사상과 신앙 등에 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으나 그의 참선사상과 참선을 통한 포교 활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현대불교의 화두 참선 수행 전통에는 용성 선사의 역할이 크게 자리잡고 있었지만 이러한 그의 역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그의 참선사상과 수행방법, 그리고 이를 통한 포교방법에 대한 연구와 알리는 일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용성 선사는 참선의 중흥과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헌신했으며, 삼장역회라는 조직을 통해 수많은 역경사업을 수행하고, 〈수심정로〉 〈각해일륜〉 등의 저술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또한 도심포교의 전진기지로서 대각교를 창립하는 등 용성 선사의 도심포교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현대불교의 포교 활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용성 선사는 대승불교의 범주 안에서 간화선의 깨달음에 가장 부합하는 삶을 산 선지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는 임제선의 맥을 잇는 참선 수행을 통해 깨달은 선지식으로서, 깨달음 이후 도심지로 나와 대중들에게 화두 참선을 전했기 때문이다.

책은 전체 2부로 만들어졌다. 먼저 제1부 제1장에서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함께 용선 선사의 생애와 민족운동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특히 3·1 독립운동을 전후한 용성 선사의 독립운동에 대해 자세히 다룬다.

제2장에서는 문서를 통한 참선포교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수심정로〉 〈수심론〉 〈오도의 진리〉 〈오도의 각(覺)〉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용성선사어록〉에 나타난 용선 선사의 간화선 수행론에 대해 집중 탐구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용성 선사의 수행실천으로서의 참선포교를 만일참선결사회, 화과원, 용정대각교당으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제4장 대중을 위한 참선포교에서는 용성 선사의 도회지 참선포교, 조선임제종 중앙포교당, 임제파강구소, 대각사 창건, 부인선회 개설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제2부에서는 도심 속 실전 화두 참선 수행을 위한 8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1부를 통해서 살펴본 용성 선사의 화두 참선법과 필자가 그동안 화두 참선을 수행하고 공부하면서 얻은 가르침들을 바탕으로 쉬운 언어로 정리했다. 특히 석종사 금아 혜국 스님으로부터 화두 참선을 배우면서 나눈 내용들이 눈에 띈다. 여덟 가지 주제는 △화두란? △발심은 왜 중요한가? △생활 속의 화두 참선 수행이란? △화두 참선과 연기·중도·정견 △화두를 참구하는 것과 관하는 것의 차이점 △삼매란 무엇인가? △의정·의단·타성일편·은산철벽·동정일여·몽중일여·오매일여 △복덕·공덕과 화두참구 등이다.

책은 용성 선사가 제시한 화두 참선법은 접근하기 쉬운 수행법으로, 그의 가르침대로 한다면 우리는 화두 참선 수행을 통해 우리가 잊고 사는 '본각진성'을 누구나 찾을 수 있고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용성 선사의 화두 참선법을 거의 최초로 다룬 이 책을 통해서 용성 선사를 독립운동가·저술가·불교개혁가로서 뿐만 아니라 그가 근대 한국사회에 '참선'이라는 우리의 전통 수행법을 도심에서 실천하면서 포교에도 힘쓴 위대한 수행자, 대선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책은 우리의 전통 수행법인 화두 참선의 뛰어남이 널리 알려져 참선 수행법을 통해 제2의 용성, 제3의 용성이 배출되기를 기대한다.

저자 허정선은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심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인간 심리에 대한 서구적 접근을 탐구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언론학 석사, 뉴욕 대학교에서 TESOL 고급 과정을 이수했다. 동국대학교 대학원 선학과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에서 〈포교방법론〉을 강의하고 '현대인의 생활참선' 과목의 주임교수를 역임했으며, 현대인 일상에 화두 참선 수행을 접목시키는 실용적인 방법을 연구했다.

현재 서울 종로 대각사에서 '도심 속의 화두 참선' 강의 및 여러 특강을 진행하며,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도 화두 참선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제시하고 있다.

불교용어 읽다 보면 저절로 불교공부



108용어로
만나는 불교
심재동 편저
운주사 / 2만5천원

책 〈108용어로 만나는 불교〉는 개시오입(開示悟入), 객진번뇌(客塵煩惱), 고집멸도(苦集滅道) 등 저자가 소개하는 불교 용어를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 공부를 하는 책이다. 수십 년간 '불교 한문'을 강의하며 한문지도사를 양성해온 저자가 108가지 주제어를 통해 불교 공부의 방향을 잡아준다.

108가지 용어에는 불법의 정수가 담긴 불교 교리나 사상뿐만 아니라 신행활동에서 사용하는 용어, 문화와 관련되거나 일상화된 용어들도 포함되어 다방면의 성찰이 가능하다. 그리고 각 용어에 대한 설명들은 이 책의 부제인 '찰나에 깨닫는 긴 사연 짧은 이야기'처럼, 생사윤회는 겁을 거듭하는 긴 세월이지만 한 찰나 몰록 깨달으면 곧 부처라는 일관된 가르침을 담고 있다.

이 책은 대장경을 배경에 두고 화엄경, 금강경, 법화경 등 주요 경전을 씨줄로 삼고 벽암록, 조주록, 대승기신론, 전등록, 선가귀감 등을 날줄로 삼아 독자를 다르마의 길로 안내한다. 한 주제어가 가진 본연의 뜻과 의미 등을 설명하고, 그 설명에 대한 근거와 출처 등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불교 공부를 하게 된다.

편저자인 심재동은 충남 대전 출생으로 조부 상제(相齊) 옹(翁)으로부터 〈사서삼경〉을 사사하고, 경원대학교 건축과,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을 졸업했다. (사)대한불교법사회 상임감사, 법무부 종교지도위원, 동국대학교·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한문 강사, 동산불교대학 한문학과 교수, 대한불교조계종 법륭사 지도법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동이서원 원장, 불교한문연구회 회장, 다문정심회 지도법사를 맡고 있다.

저서로 〈알기 쉬운 한문해석법〉 〈신 금강경언해〉 〈이 썩을 놈아〉 〈한문정석〉 〈한국불교와 천수경〉 〈불자법요집〉 등이 있고, 역서로 〈육조단경〉 〈초발심자경문〉 〈사십이장경〉 등이 있다.

박재완 기자

다시 볼수록 가슴에 새기는 선사의 활구



누가 듣는가
하늘 밖에서
허공 밟는 소리를
양범수 엮음
시간여행 / 1만5천원

책 〈누가 듣는가 하늘 밖에서 허공 밟는 소리를〉은 선사들의 오도송과 열반송을 모은 책이다. 책에 수록한 100편의 게송은 2008~2009년 불교신문에 '오소자의 게송 감상'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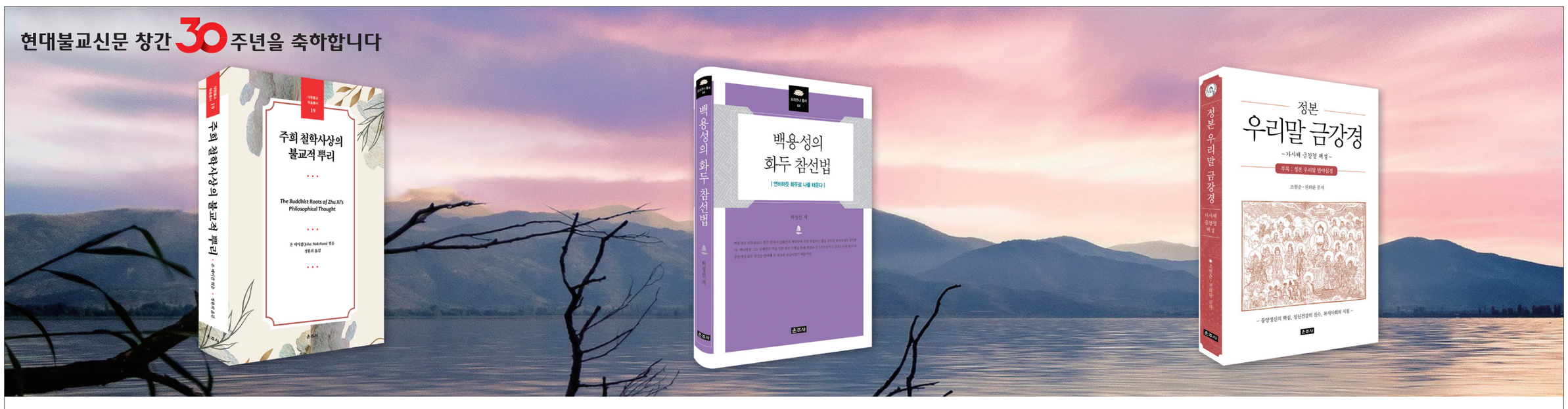
엮은이는 신라·고려·조선 선사 50인, 중국 선사 50인의 선시와 게송을 특별한 기준 없이 선정해 실었다. 신문에 글을 연재한 지 약 15년의 세월이 흐른 후 글을 다시 음미해 보고 출판을 결심했다.

"연재할 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다시 볼수록 선사들의 대기대용 활구가 가슴 깊이 새겨지고, 세월이 갈수록 소중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한 권의 책으로 묶어 둘 요량으로 편찬합니다."

팔순을 맞은 엮은이는 불교계의 원로 언론인으로, 한때는 출가수행자의 길을 걸었던 경험이 있어 오도송과 열반송을 심도 깊이 이해하며 감상평을 붙였다.

양범수(필명:오소자)는 1980년 5월부터 1994년 4월까지 불교신문에 근무했으며 취재 차장과 부장을 거쳐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역서로 〈금강경〉 〈부모은중경〉 〈아미타경〉 〈신주팔양경〉 〈관세음보살보문품〉 등이 있으며 팔순을 맞아 한국과 중국의 선사들의 게송을 〈누가 듣는가 하늘 밖에서 허공 밟는 소리를 - 오소자의 선시 감상〉으로 출간했다.

박재완 기자



유학자 주희의 사상에 대한 고찰!
주희 철학사상의 불교적 뿌리
중국 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주희는 강하게 불교를 배척하고 비판했지만, 그의 사상 상당 부분이 불교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밝힌 획기적인 연구!
존 메이컴 엮음, 정환희 역/신국판/552쪽/값 30,000원

한국불교의 전통 수행법을 되살리다!
백용성의 화두참선법
일제 강점기에 한국 전통불교의 중흥과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용성스님의 삶에서 드러나는 선사상과 수행방법, 그리고 시대를 앞서간 포교방법에 대해 조명하였다!
허정선 저/신국판/양장/268쪽/값 22,000원

가사체 금강경과 가사체 반야심경 해설!
정본 우리말 금강경
9종에 달하는 금강경 판본을 비교해 '정본 한문 금강경'을 완성하고 이를 토대로 명확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사체로 만든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조현춘.천희완 공저/신국판/448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